국민대 제 34회 HK 초청포럼
중국의 온라인 활동과 통제
- 새장 속의 자유-

2014년 3월 13일

李 民 子(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과)

I. 서론

◩ 중국 인터넷 확산 현황

2013년 12월말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약 6억 1,800만명으로 세계 1위이며 그 중 휴대폰 인터넷 사용자가 약 5억명으로 81%이다. 또한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 사용자는 약 2억 8,100만명으로 정보화 대국이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 중 웨이보 사용자 비율은 45.5%이다.[1]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13년 12월말 인터넷 사용자는 2013년 6월말에 비해 약 2,700만명 증가한 반면 웨이보 사용자는 2013년 6월말 3억 3,100만명과 비교할 때 2013년 12월말 5,000만명 감소했다는 것이다. 왜 웨이보 사용자가 2013년 6월까지 증가 추세였다가 2013년 6월 이후 2013년 12월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는가? 이에 관해 CNNIC는 "SNS 영업매출의 상업화가 낙관적이지 않으며 이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 규모 및 인터넷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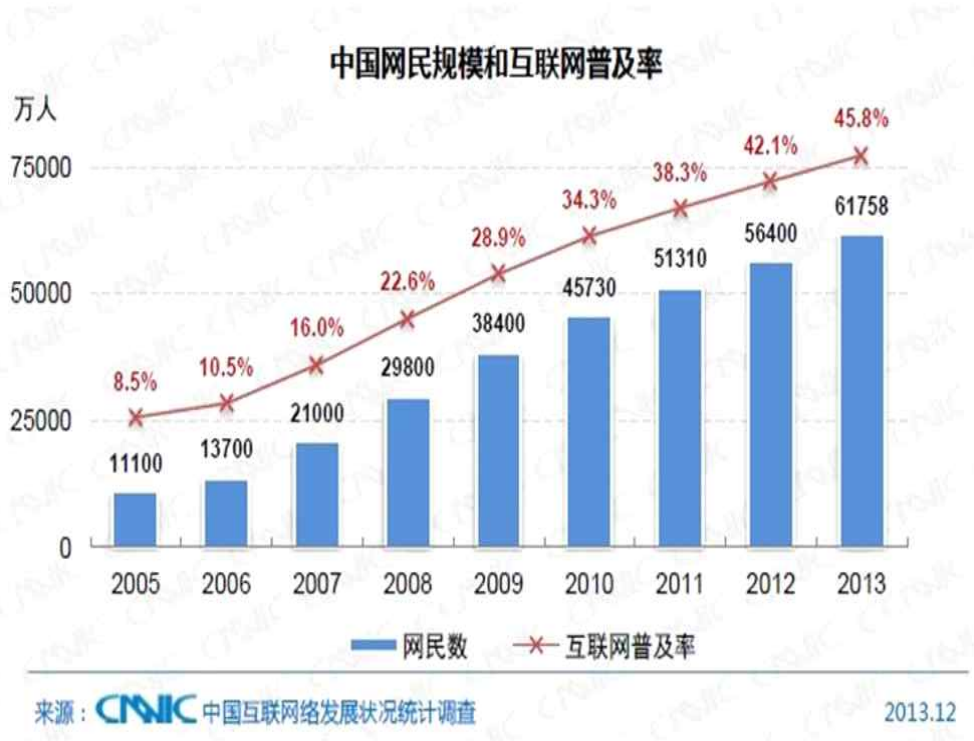

图 1 中国网民规模与互联网普及率

1) 中國互聯网絡信息中心, 「第33次中國互聯网絡發展狀況統計報告」, 2014. 01. www.cnnic.net.cn. (검색일 2014년 2월 21일), p. 5, p. 42.

2012-2013년 웨이보 사용자 변화

图 29 2012-2013 年中国微博用户数及网民使用率

인터넷은 국가와 사회 모두 정치적 공간(political space)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인터넷과 연결된 대중저항을 이해하지 않고 중국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경쟁은 일종의 '줄다리기'와 비슷하다. 국가는 온라인 공간을 국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온라인 통제'**를 하고,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온라인 활동'**으로 대응한다.

중국 인터넷의 정치·사회적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정부의 온라인 통제를 강조하는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은 정부의 사회통제 수단에 불과하다. 인터넷은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국가에게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제공한다. 이런 연구는 권위주의적인 일당체제 하에서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2)]

둘째, 시민들의 온라인 활동을 강조하는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은 중국에서 언론자유 및 시민사회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라고 본다. 따라서 인터넷이 정치변화를 촉진하여 중국을 개방된 사회와 민주체제로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한다. 구오빈 양(Guobin Yang)

2) Rebecca MacKinnon, "China's 'Networked Authoritarianism'," *Journal of Democracy,* 22, No. 2 (April 2011), p. 33; Jonathan Hassid, "Safety Valve or Pressure Cooker? Blogs in Chinese Political Life," *Journal of Communication,* 62, No. 2 (April 2012), pp. 212-30; Xiao Qiang, "The Battle for the Chinese Internet," *Journal of Democracy,* 22 No. 2 (April 2011), p. 47; Gudren Wacker, "The Internet and Censorship in China," in Christopher R. Hughes and Gudrun Wacker ed. *China and Internet: Politics of the Digital Leap Forward* (London: RoutledgeCurzon, 2003), pp. 58-82.

의 주장에 의하면, 일반 시민들이 사회변화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은 사회혁명을 가져왔다.[3] 이처럼 기존연구는 인터넷이 국가-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었다. 즉, 인터넷이 사회통제의 수단으로서 국가의 힘을 강화시킨다는 주장과 공적 논의 활성화, 정치 감독 강화, 온라인 조직화, 온라인 저항 증가 등을 통해 사회 세력의 힘을 강화시킨다는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4]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중국정부가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통제하며 활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온라인 공간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다.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는 정부가 통제하는 정치적 이슈는 공론화에 실패하지만, 그 외의 사회적 이슈들은 자유롭게 공론화될 수 있다. 이런 중국 온라인 공간의 특징을 '새장 속의 자유'라는 시각에서 설명하려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새장 밖으로 자유롭게 날아가려는 네티즌에게 중국정부가 어떻게 '새장 속의 자유'만을 허용하는지를 다음 몇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첫째, 중국정부는 온라인 정보를 어떤 기구를 통해 어떤 기술적 방식으로 통제하는가? 둘째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이슈는 허용되고 어떤 이슈는 왜 금지되는가? 셋째, 온라인 여론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핵심적 여론 매체인 웨이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넷째, 중국 정부는 온라인 공간을 공산당의 정책과 이념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 중국 시민들의 온라인 활동에 관해서는 다양한 기존연구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공간을 국가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중국정부가 인터넷 통제와 중국식 인터넷 문화 형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집중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연구과 다음과 같은 면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중국정부의 온라인 공간 통제 방식을 '새장 속의 자유'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국가와 시민 간의 힘겨루기'를 설명할 것이다. 이런 시도는 인터넷 통제가 국가의 힘을 강화시킨다는 기존 주장과 다른 중국적 특징을 보여준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기초한 인터넷 시대에 통제의 한계를 인식한 중국정부는 '통제와 자유의 공존'이라는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보면 중국 네티즌들은 정부가 만든 새장에 갇혀 있다. 그러나 제한된 이슈 영역 내에서는 시민들의 온라인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새장 속에서는 시민들의 언론자유가 허용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새장 속의 자유'를 유지함으로써 정치개혁 없이도 불안정한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둘째, 기존연구는 시민들의 온라인 활동만을 연구했을 뿐 국가의 온라인 활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국정부가 온라인 공간에 참여하여 어떻게 국가 공간

---

3) Yongnian Zheng, *Technological Empowerment: The Internet, State, and Society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p. 8, p. 10; Guobin Yang, *The Power of the Internet in China: Citizen Activism Online*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p. 213; Guobin Yang, "Contention in Cyberspace," in Kevin J. O'Brien ed. *Popular Protest in Chin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pp. 126-143; Xiaoling Zhang and Yongnian Zheng (eds.), *Chin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Revolution: Social changes and state respons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9); Zixue Tai, *The Internet in China: Cyberspace and Civil Society* (New York: Routledge, 2006).

4) 이런 상반된 주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Zheng Yongnian (2008), pp. 9-10; Guobin Yang (2009), pp. 26-28.

으로 만드는지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중국정부가 온라인 공간을 '통제에서 참여의 공간'으로 재인식하고 대응하는 과정을 '중국식 인터넷 문화 형성'과 '인터넷 평론원' 제도를 통해 살펴본다.

기존연구는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 국가와 시민들이 줄다리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언론자유가 확대되어 왔음을 강조했다. 이 연구는 시민들의 언론 자유 확대는 새장의 크기를 확장 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새장 속에 갇힌 자유'임을 설명한다. 왜냐하면 중국정부는 선택적으로 특정 해외 웹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국내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으며, 이슈에 따라 우선순위를 차별화하여 허용과 통제의 기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온라인 공간 관리 방식의 특징은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시민들의 언론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온라인 통제로 인하여 중국의 온라인 공간은 '닫힌 자유로운 공간'이다.

II. 인터넷 관리기구와 기술적 통제

1.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中宣部), 국가인터넷판공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2013년 8월 19일 공산당 선전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력한 인터넷 군대를 양성하여 뉴미디어 여론 기반을 장악해야 한다. 선전간부들이 지식인 집단을 조직하여 당의 방침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서구사상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매체들이 이런 사상을 퍼뜨려선 안된다"고 말하며 사상통제와 온라인 여론통제를 강조했다. 이 회의 직후 공안국(公安局)이 120만명의 웨이보 팔로워를 보유한 쉐만쯔 등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했다.[5)]

중국정부는 인터넷에 의한 자유로운 정보유통이 정치체제 변화를 촉진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정부기구를 이용하여 온라인 정보유통을 통제하는가? 중국의 온라인 언론통제는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상호 협력하며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슈에 따라 관련 기관이 어떻게 상호협력하며 어느 기관이 최고 결정권을 가진 기구인지는 모호하다. 온라인 언론 통제 기관은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中宣部)와 국무원(國務院) 산하조직인 국가인터넷판공실(國家互聯網辦公室), 신문판공실(新聞辦公室),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 등을 들 수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통신 네트워크를 감독하고, 공안부는 인터넷 범죄 단속을 책임지고 있다. 신문판공실은 온라인 뉴스 내용을 감독한다.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정보통신부(信息産業部)는 2005년 9월 25일 "인터넷 뉴스 서비스 관리규정(互聯网新聞信息服務管理規定)"을 발표하여 온라인 뉴스를 감독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 지방정부의 신문판공실도 온라인 뉴스를 감독하게 되었다.[6)]

---

5) 성연철,「인터넷 강군 양성해 뉴미디어 장악하라」, <한겨레>, 2013년 9월 4일.
6) 馬駿・ 段秦・ 李海英・ 朱閣 著, 『中國的互聯網治理』(北京: 中國發展出版社, 2011), 133-135쪽.

인터넷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2011년 17기 3중전회 주요의제로 '인터넷 문화건설 및 관리강화'를 채택했다. 17기 6중전회에서도 웨이보 등 뉴미디어에 대한 관리 강화가 논의되었다. 이처럼 인터넷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중국정부는 2011년 5월 <국가인터넷판공실>을 국무원 판공청 산하에 신설했다. 국가인터넷판공실의 주임(장관급)은 왕천(王晨)이 맡았다. 이 조직은 인터넷 정보전파와 관련된 정책과 법률의 제정 책임, 인터넷을 통해 게재되는 뉴스에 대한 감독, 위법 인터넷 사이트 조사와 IP 주소 배급 관리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2011년 10월 13일 국가인터넷판공실은 베이징(北京)에서 "웨이보 경험 교류회" 개최했다. 이 교류회에서 왕 주임은 웨이보가 신속한 소식전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7] 이런 주장은 런민일보(人民日報)에서도 게재되었다. 즉,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무차별적인 폄질도 근절해야 한다.[8]

온라인 공간에서 언론매체의 내용을 통제하는 핵심 기관은 "중선부와 국가인터넷판공실"이라고 볼 수 있다. 중화권 매체 보쉰(博訊, boxun.com)의 보도를 보면 인터넷 정보를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2013년 2월 미국 유력 언론 매체들에 대한 중국발 해킹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가 고위층의 지시로 뉴욕 타임스(NYT) 해킹을 주도했다고 보쉰이 보도했다. 즉,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선전·사상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류윈산(劉雲山) 상무위원과 류치바오(劉奇葆) 중앙선전부장, 국가인터넷판공실 책임자인 왕천이 뉴욕 타임스 해킹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9]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었던 2011년 뉴스는 '2011년 7월 23일 발생한 원저우(溫州) 고속철도 사고'였다.[10] 중국 네티즌은 '사고 원인 조사 지연'과 '사고처리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처' 및 철도부를 비판했다. 중국정부는 철도부 비판이 공산당 중앙 지도부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보도지침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 2011년 7월 29일 중선부는 다음과 같은 보도지침을 내렸다. "신문, 잡지, 웹사이트 등 모든 국내 언론들은 고속열차 추락사건 관련 보도 수위를 낮춰야 한다. 관계당국이 제공하는 긍정적 뉴스나 소식을 제외한 어떤 보도나 논평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11]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온라인 이슈에 관한 언론 통제를 지휘하는 핵심기구는 중선부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앙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中央网絡安全和信息化領導小組)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중국을 "정보화 대국에서 정보화 강국으로(從网絡大國到网

---

7) <동아일보>, 2011년 10월 14일.
8) <人民日報>, 2011年 10月 1日.
9) <동아일보>, 2013년 2월 4일.
10) <人民網>, 2011년 12월 23일. 원저우 고속철도 사건을 둘러싼 시민들의 온라인 활동에 관한 분석은 다음 참조. Minja Lee, "Online Activism by Smart Mobs and Political Change in Southern China," *Issues & Studies,* Vol. 48, No. 4 (December 2012), pp. 1-35.
11) *South China Morning Post,* July 31, 2011; <明報>, 2011年 7月 31日.

絡强國)”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网絡安全和信息化領導小組)를 2014년 2월 만들었다. 이 조직의 조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고 부조장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류윈산(劉雲山) 상무위원이다. 이 조직을 통해 중국정부는 네트워크 안전 보장, 국가 이익 보호, 정보화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2]

2. 인터넷 만리장성: 웹사이트 차단과 검색어 필터링

중국은 1998년부터 인터넷 만리장성(防火長城, Great Fire Wall of China)이라 불리는 국가 인터넷 검열시스템을 구축했다. 만리장성은 IP 주소나 키워드를 기반으로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를 제한하고 특정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며, 일반적인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이메일, 게임, 휴대폰 문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검열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만리장성은 황금방패(金盾) 프로젝트라고도 한다.

황금방패 프로젝트는 인터넷 콘텐츠를 감시・통제・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을 포괄한다. 황금방패는 중국 외부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을 중간에서 막아 중국 네티즌이 이들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방해한다. 또한 중국 내 인터넷에 올라오는 문제 있는 텍스트와 오디오, 동영상 정보 역시 황금방패가 분석하고 필터링한다. 이중 방어를 위해 사이버 경찰을 동원하여 문제 있는 콘텐츠 삭제를 확인하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트는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 폐쇄하기도 한다. 명분은 음란 콘텐츠 퇴치이지만 사실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필터링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2008년 타이완 대륙위원회는 중국 내에 활동 중인 사이버 경찰은 약 3만명, 인터넷 관리인원은 30만명이라는 발표를 했다.[13] 중국의 엄격한 인터넷 통제는 네티즌들에 대한 정보통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아 왔다.

중국은 유해한 정보를 필터링하기 위해 방화벽, 프록시 서버, 필터링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필터링 전용 소프트웨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단어를 검색하여 관련 자료를 자동 삭제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웹 사이트를 자동 차단한다. 그 외에 인터넷 사용자들이 차단된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시간에 따라 접속한 콘텐츠 경향을 인식하는 통제 시스템도 가동된다.[14]

중국정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선별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01년 3월말 국무원 산하의 정보현대화사무실(信息現代化辦公室)은 전국의 모든 인터넷 카페에 대

12) 江蔚, “中央网絡安全和信息化領導小組成立,” 2014. 02. 27. http://www.bianews.com/news

13) 신경진, 「중국 인터넷은 자유의 도구인가, 탄압의 도구인가」,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지음, 『2010-2011 차이나 트렌드』(서울: 중앙books, 2010), 124쪽.

14)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채팅 메신저 프로그램인 텐센트(Tencent)사의 QQ의 경우, 그 안에 포함된 ‘COMToolKit.dll’라는 파일 속에 금지어 리스트가 코드화되어 담겨있다고 한다. 그 안에 담긴 검열된 키워드 가운데는 비속어나 욕설, 성적 표현과 같은 윤리적 금기어들은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어휘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Xiao Qiang, "A List of Censored Words in Chinese Cyberspace," http://chinadigitaltimes.net/2004/08/the-words-you-never-see-in-chinese-cyberspace/

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여 중국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웹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했다.[15] 또한 중국 정부 산하의 『중국인터넷협회』는 2004년 6월 10일 <위법, 불량정보통보센터>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것은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안전 위협, 국가기밀누설, 정권 전복 기도, 국가통일 파괴, 사회질서 교란, 포르노 등을 고발하는 창구로 신고하면 포상한다고 공지했다. 중국의 여러 지점에서 6개월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베이징의 경우 수천 개의 뉴스 및 정치·종교적 사이트가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중국정부는 항의 사이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한다. 예컨대 2007년 1월 광저우(廣州)에서 교사들의 임금인상 시위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해당 온라인 포럼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17] 중국정부의 온라인 통제 하에서 천안문사건, 파룬공(法輪功), 독자적인 당 창당, 소수민족 독립 등의 어휘는 검색어 필터링을 통해 엄격히 차단되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화되기 어렵다. 이런 이슈는 게릴라 형식으로 잠시 올라올 수는 있지만 검색어 필터링에 의해 금방 삭제된다.

2011년 초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튀니지식의 '재스민 혁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중국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했다. '자스민 시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검색어는 필터링을 통해 차단되었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화교 인터넷 사이트 보쉰에 2011년 2월 27일 제 2차 자스민(Jasmine) 혁명 집회를 열자는 글이 게재되었다. 그 후 2011년 2월 말 중국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고, 자스민 시위관련 검색어 및 사이트가 차단되었다. 시나닷컴 등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중동과 아프리카 시위와 관련한 토론이 금지되기도 했다.[18]

한편, 중국정부가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가 몰래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사설망(VPN) 판매가 불법화되기도 했다. 2011년 트위터·유튜브·구글 같은 해외 사이트의 접속이 금지된 중국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이들 사이트에 접근하는 네티즌이 급증했다. 이에 중국 최대의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淘寶)'는 정부가 접속을 막은 해외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 장비 판매를 금지시켰다. 타오바오는 사이트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불법 장비'를 신고하고 즉각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19] 이처럼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통해 인터넷이 통제되기 때문에 중국 네티즌의 온라인 활동의 자유는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 미국 IT 기업의 중국 인터넷 검열 협조

중국시장을 점유하려는 미국 인터넷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검열에 동의하고 중국에 진출했다. 미국 및 서방 인터넷기업들(Cisco, Google, Microsoft, Yahoo 등)이 중국정부에 협력하여

15) *South China Morning Post,* July 1, 2001.
16) <중앙일보>, 2004년 7월 26일; *New York Times,* December 4, 2002.
17) Guobin Yang (2009), p. 51.
18) *South China Morning Post,* February 21, 2011; <동아일보>, 2011년 2월 20일; <중앙일보>, 2011년 2월 21일.
19) *South China Morning Post,* August 23, 2011.

중국 국내 정보 통제를 돕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중국의 세련된 인터넷 감시 시스템은 미국 및 서방 인터넷 기업들의 기술 및 장비 제공이 없었다면 구축되기 어려웠을 것이다.[20]

미국 IT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논쟁이 되어왔다. 미국 IT기업들이 중국의 인터넷 통제에 협력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 구글(Google)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내 법규 준수를 위해 중국당국의 검색 심사제 등 언론자유 제한 조건을 받아들인 구글의 선택에 많은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 중국정부의 인터넷 검열기준에 따르면 검색엔진 이용자는 만리장성(防火長城) 검열시스템을 거친 후 검색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어판 구글에서는 대만독립, 티베트독립, 천안문사건, 파룬공, 민주, 자유 등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검색이 되지 않는다. 구글은 중국정부의 요구에 따라 사이버 토론을 주도하던 블로그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구글은 제한적인 접근을 통해서라도 중국에 정보를 확산해 가는 것이 더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므로 각 국가에 적합한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21]

둘째, 미국의 인터넷 보안업체 시스코(Cisco System)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터넷 통제를 위한 기술 시스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도 중국 내 블로그 개설을 허용받기 위해 MSN 스페이스에서 '자유,' '민주주의,' 등의 단어를 검열하여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야후(Yahoo)는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체제 위협적 자료들을 삭제하겠다는 자율규약(self-discipline pact)에 서명하고 중국에 진출했다. 심지어 야후는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들에 관한 정보를 중국정부에 제공하여 이들을 체포하는데 협력하기까지 했다.[22]

2010년 1월 발생한 구글 사건은 미국의 인터넷 기업이 중국의 검열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중국시장에서 영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정부와 구글의 갈등은 '인터넷 국가주권'을 명분으로 내세운 중국과 '인터넷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 표준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중국정부는 왜 구글 G메일을 해킹하여 구글 및 미국정부와 충돌했는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 의하면, 리장춘(李長春) 상무위원은 자신에 대한 비난글이 여과없이 구글에 게재되는 것을 보고 구글이 검열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장춘은 저우융캉(周永康)과 협력하여 구글 본사와 구글 중국어판과의 연계를 단절하라고 구글을 압박했고, 구글 G 메일을 쓰던 반체제 인사들의 계정 해킹을 지시하기도 했다. 중국정부는 3

---

20) Xiaoling Zhang and Yongnian Zheng (eds.) (2009). 미국 회사가 개발한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으로 프리즘(prism)을 들 수 있다. 프리즘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회사를 통해 외국인들이 미국인 또는 외국인들과 주고받은 e메일, 메시지, 음성, 사진, 동여상 등 모든 종류의 디지털 통신 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앙일보>, 2013년 7월 23일.

21) 정의철, 「인터넷 규제와 정치 공론장: 구글의 중국 진출 케이스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통권 9호 (2008), 209-245쪽; 배영자, 「미국과 중국의 IT 협력과 갈등: 반도체 산업과 인터넷 규제 사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8권 1호 (2011), 73쪽.

22) Tamara Renee Shie, "The Tangled Web: does the Internet offer promise or peril f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2(40) (August, 2004), pp. 534-536.

개 국유통신회사에 구글과의 사업 중단을 명령했다.[23] 2010년 1월 구글은 중국의 인터넷 검열정책을 비판하며 중국에서 사업 철수 가능성을 발표했고, 2011년 7월 1일부터 중국에서 서비스가 완전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9월 구글 차이나는 중국에서 인터넷정보공급자(ICP) 영업허가를 갱신했다.[24] 구글이 중국에서 사업재개를 하기 위해 중국법을 준수하고 위법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중국정부와 사전합의 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결국 구글 역시 거대한 중국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검열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III. 닫힌 표현의 자유: 이슈 통제

'인터넷 자유(Internet Freedom)'를 강조하는 서방국가들은 '인터넷 국가주권(Sovereignty over Internet)을 명분으로 내걸고 인터넷을 통제해 온 중국을 비판해 왔다. '인터넷 자유'란 오프라인에서 개인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듯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가 보장되고, 정부의 검열이나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각국에서 기본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중국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외에도 정부의 감독권을 중시하는 '인터넷 국가주권'을 주장해 왔다. 즉, 중국정부는 정권 전복・민족분열・포르노・폭력 등과 관련된 정보는 국가와 사회의 안정 및 국민의 이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법률에 기초하여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검열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25]

중국에서 온라인 활동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이슈 영역과 관점에 달려있다.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는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적 이슈화가 가능하다.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이슈들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지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되기 때문에 논의가 금지된다. 이런 중국정부의 인터넷 통제 하에서 어떤 이슈는 왜 허용되고 어떤 이슈는 왜 금지되는가? 인터넷을 이용한 집회 제안, 공산당 일당체제에 도전하는 이슈(정치제체 개혁, 정당조직), 소수민족 독립이나 집단저항, 천안문사건 재평가, 중앙 고위급 지도자 비판 등은 금지된 이슈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공론화되기 어렵다. 그러나 시민들의 알권리 및 권리보호, 지방간부의 부정부패 폭로, 사회정책 비판 및 민생문제 등은 온라인 공간에서 공론화될 수 있다. 특히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 意見領袖)가 올린 글은 다수의 관심을 끌어 공적 이슈화되기 쉽다.[26] 중국정부가 금지하는 이슈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3) *New York Times,* December 4, 2010.
24) <經濟參考報>, 2011年 9月 8日.
25) 배영자 (2011), 71-72쪽.
26) 오피니언 리더가 이슈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다음 참조. 李彪, 『誰在网絡中呼風喚雨』(北京: 人民日報出版社, 2012), 73-139쪽.

1. 공산당 일당체제에 도전

첫째, 중국정부는 서구식 민주화를 주장하는 <08 헌장>을 2008년 12월 불법화함으로써 국민 권리요구에 엄격한 상한선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류샤오보(劉曉波)는 2008년 12월 10일 중국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08 헌장> 발표를 주도했다. 중국정부는 류샤오보를 체포했고, 1년 후 2009년 12월 25일 11년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2010년 10월 8일 류샤오보가 201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되었다. 중국정부는 2010년 10월 노벨평화상 수상 및 류샤오보에 대한 보도를 철저히 금지하고, 인터넷 검열을 강화함으로써 언론통제 국가라는 비난을 받았다. 바이두, 소후, 시나닷컴 등 중국 포털 사이트는 류의 수상 발표를 앞둔 2010년 10월 7일부터 그와 관련한 기사 및 블로그가 차단되었다. 바이두에서 '류샤오보'나 '노벨평화상'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법률과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검색이 되지 않았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도 '류샤오보'를 입력하면 전송이 되지 않았다.[27]

노벨상 시상식 당일 중국정부의 검열강화로 중국에서 미국 CNN, 영국 BBC 등 외국 주요 언론 웹 사이트, 노벨상 위원회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되었다.[28]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 류샤오보는 불참했고 '빈 의자'만 보였다. 이런 '빈 의자'의 상징성을 의식한 듯 중국정부는 신문과 인터넷에서 '빈 의자' 사진 검열도 했다. 중국 당국은 빈 의자의 검색 결과를 차단하고 빈 의자와 관련된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린 블로거의 계정을 취소하거나 사진을 삭제했다.[29]

둘째,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산당에 반대하는 정당을 조직하는 것 역시 철저히 금지되는 이슈이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치조직화를 시도한 대표적 사건이 '중국 민주당(China Democracy Party)' 창당 사건이었다. 중국 민주당은 해외 각국에 웹 사이트를 구축한 후 미국에 기반을 둔 'VIP 레퍼런스' 라는 뉴스레터를 통해 수천명의 중국 본토인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발송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즈음하여 공개적으로 중국 야당을 등록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중국정부는 중국 민주당 창당 사건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지도자 대부분을 구속했고 조직도 해체했다. 중국 민주당 창당을 주도했던 왕(Wang Youcai)은 1998년 12월 국가 전복 기도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조직화는 중국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는 이슈이다.

2. 소수민족의 집단저항

2008년 티베트인 집단저항, 2009년 7월 및 2011년 7월 신장 위구르(新疆 維吾爾) 인 집단저항, 2011년 5월 네이멍구(內蒙古)인 집단저항 등이 소수민족 집단저항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런 소수민족의 집단저항에서 휴대폰 및 인터넷이 시위 조직화의 수단이 되자 중국정부는 인터넷 통제로 대응했다. 첫째, 2011년 5월 몽고족 집단저항은 몽고족의 자존심을 건드린 트럭운전사의 발언이 '이메일과 블로그' 등을 통해 몽고족 학생들에게 확산되어 집단시위를 촉

27) <조선일보>, 2010년 10월 9일.
28) *The New York Times,* October 8, 2010; <동아일보>, 2010년 12월 11일.
29) <南方都市報>, 2010年 12月 12日; <한겨레>, 2010년 12월 13일; <동아일보>, 2010년 12월 15일.

발시켰다.[30] 네이멍구에서 집단시위가 발생하자 중국정부는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제했다. 인터넷 토론 사이트와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가 현지주민들에게 휴대폰을 통해 계속 전달되었다. 5월 29일부터 인터넷 채팅방이 차단되었고, ‘만리장성 방화벽’ 가동되어 지역명(네이멍구, 후허하오터) 키워드는 바이두, 시나닷컴 등 유명 포털이나 웨이보에서 검색이 불가능했다.[31]

둘째, 2009년 6월 26일 광둥성(廣東省)에서 발생한 신장 위구르 출신 노동자와 현지 노동자 간의 집단충돌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신장 지역으로 알려져 7월 5일 신장 위구르인 집단저항의 발단이 되었다. 2009년 7월 신장 위구르 집단시위 과정에서도 인터넷 및 휴대폰이 시위를 조직화하는 수단이었다. 2009년 7월 1일 인터넷・유선전화・휴대폰 문자를 통해 “세계 위구르 대표대회를 개최하자”는 내용을 위구르인들에게 연락하여 군중을 선동했다. 7월 4일 저녁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대량의 글을 올려 7월 5일 우루무치 시민광장 남문에서 불법 시위를 하자고 제안했다. 시나 닷컴이 가장 먼저 우루무치에서 파괴 및 방화 등 심각한 폭력범죄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렸다.[32] 이런 사건들을 보면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유통이 각 지역의 위구르인들을 연결하고 시위를 조직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제했다.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정책을 비판하고 시민권 보호를 주장하는 이슈는 공론화될 수 있지만 체제저항 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 ‘오늘 몇 시에 어디에서 모여 시위를 하자’고 웨이보에 쓴다면 당장 잡혀갈 것이다. 공산당은 의견표출은 허용하지만 집단행동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33]

IV. 여론관리: 웨이보 통제

중국 정부는 페이스 북, 트위터를 철저히 차단하는 대신 중국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인 웨이보(微博)를 허용하고 있다. 웨이보란 마이크로 블로그(Micro Blog, 微型博客) 혹은 미니 블로그(Mini Blog)를 축약한 표현이다. 웨이보는 중국판 트위터라고 불린다. 중국에서 2010년부터 웨이보를 이용한 온라인 활동이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34] 정보를 여과시켜 사회를 통제하려는 중국정부의 언론통제는 2010년부터 웨이보가 확산되자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웨이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어떻게 통제할지를 놓고 중국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도 인터넷 발달이 궁극적으로는 공산당 정권과 국가에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웨이보를 폐쇄하지는 않을 것이다.[35] 공산당 중

30) 이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한겨레>, 2011년 5월 30일; <중앙일보>, 2011년 5월 31.
31) <중앙일보>, 2011년 5월 31일.
32) 葉 皓 等 著, 『正確應對网絡事件』(南京: 江蘇人民出版社, 2009), 105-114쪽.
33)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중앙일보>, 2013년 5월 20일.
34) 중국판 트위터가 웨이보이며, 런런왕(人人網: renren.com)은 중국판 페이스북으로 주로 대학 내에서 학생들이 자료를 올려 공유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이 사이트는 I love School처럼 동창 찾기에도 사용되고 있다. 중국판 유튜브(You Tube)로는 여우쿠(优酷网)와 투또우(土豆网)가 있다. 중국 블로그 현황 및 역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于紹宗・于麗娜 著, 『中國博客調查』(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12).

앙선전부와 국무원 국가인터넷판공실에서 이미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접속을 차단하고 있지만, 웨이보까지 막을 경우 국민의 불만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36] 중국 공산당의 선전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리는 "우리는 중국식 뉴스포털과 블로그를 갖고 있으며 웨이보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37]

중국 웨이보는 해외 SNS(트위터, 페이스북)[38]와 연결이 차단되어 있고, 중국내 서로 다른 포털 사이트의 웨이보 간에도 상호 연결이 차단된 '중국 특색의 SNS'이다. 따라서 웨이보는 해외 SNS가 중국 네티즌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데 유리하다. 한국의 경우는 SNS 확산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가 해외 SNS에는 적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실명제 실효성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웨이보는 해외 SNS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웨이보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온라인 여론을 상대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39]

중국에서 대표적 웨이보는 사용자 1위 시나(新浪) 웨이보, 2위 텅쉰(騰訊) 웨이보, 3위 바이두 티에바(百度貼吧) 등을 들 수 있다. 웨이보는 신속하게 어디에서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유통 및 여론형성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9년 10월 차이나 유니콤(China Unicom, 中國聯通)이 아이폰(iPhone)을 중국시장에 도입한 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만리장성 방화벽으로 유명한 인터넷 검열도구를 가진 중국 당국도 현실적으로 웨이보 관리가 쉽지 않다.[40] 웨이보는 동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문자 및 동영상을 통해 전달할 수 있으므로 중국정부가 한꺼번에 검열·삭제하기는 역부족이다. 웨이보에서 신속한 정보유통은 사회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41]

중국정부는 온라인 여론에 영향력이 강한 웨이보를 어떻게 통제하는가? 첫째, 웨이보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베이징시는 2011년 12월 '웨이보 실명제' 실시 규정을 발표했다.[42] 2012년 3월 16일부터 전국적 차원에서 웨이보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보시라이 사건을 계기로 SNS 단속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어온 시나 웨이보의 유명한 웨이보 계정들을 폐쇄했다. 중국의 최대 웨이보 운영업체인 시나 닷컴은 웨이보

35) *Financial Times,* September 18, 2011.
36) <동아일보>, 2011년 8월 4일.
37) <중앙일보>, 2011년 9월 19일.
38) 전 세계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세계 주요 SNS는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마이스페이스(MySpace) 등이다. 마이스페이스, 유튜브 등과 같은 HTML 기반의 SNS는 사진과 영상을 교환하는데는 적합하지만, 텍스트 기반의 SNS에 비해 모바일 통신 여건이 불리하다. 따라서 모바일 SNS 접속자에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인기이다. 서민석, 「소통방식의 변화를 주도하는 페이스북」, 『SERI 경영노트』, 제75호, 삼성경제연구소 (2010).
39) 한국은 2007년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후 2011년 12월 정부가 폐지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시위 1년 후 2009년 4월부터 하루 방문자가 30만명이던 실명제 적용대상 사이트 기준을 10만명으로 확대해 '표현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명제는 SNS 서비스가 확산된 후 실효성이 사라졌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이 국외 서비스라 실명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겨레>, 2011년 12월 29일.
40) <人民网>, 2011年 4月 2日. 2011년 웨이보에서 주요 사건과 웨이보의 사회적 영향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李建盛・陳華・馬春玲 主編, 『首都網絡文化發展報告 2011-2012』 (北京: 人民出版社, 2012), 214-228쪽.
41) 李建盛・ 陳 華・ 馬春玲 主編, 『首都网絡文化 發展報告 2010-2011』, (北京: 人民出版社, 2011), 227-229쪽.
42) 「北京市微博客發展管理若干規定」, <北京晚報>, 2011年 12月 16日. 이 규정에 의하면 웨이보 사용 전에 실명을 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웨이보에 글 올리기, 게시글 복사 및 전파를 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고 사용해야 한다. 웨이보 정보 열람자는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웨이보 사용자들은 3개월 내에 실명계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웨이보 실명제 규정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웨이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포털 사이트에도 적용된다.

자율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012년 5월 10일 발표했다. 또한 시나 웨이보는 웨이보 사용자 점수제로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43]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폐지되었던 바로 그 시점에 중국정부는 웨이보 실명제 실시를 발표했고, 이를 비판하는 이슈는 공론화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되었다.

웨이보 실명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웨이보에 올라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자기검열' 유도장치라고 볼 수 있다. 웨이보를 통해 유언비어, 인권 단체 및 반체제적 정보가 확산되어 사회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또한 웨이보가 시민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 시민들의 집단행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웨이보 실명제의 실시에는 2011년 7월 온저우(溫州) 고속철도 사고 때 웨이보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정부의 언론통제를 무력화시킨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둘째, 웨이보는 정부가 국민 여론을 파악하는 동시에 통제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시나 웨이보가 정부 서비스를 개설한 후 2011년 11월 기준으로 정부기관과 공무원의 이용자 계정 1만 9천개가 새로 생겼다. 특히 공안 요원들은 5천 개 이상 계정을 개설해 공직자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웨이보를 이용한다. 베이징 공안은 전담 부서를 두고 요원들에게 24시간 웨이보의 글을 감시하고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도록 하고 있다. 웨이보 전담팀의 임무는 공권력에 대한 여론을 알아내고 호의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다.[44] 공안기관은 웨이보를 이용하여 정부에 호의적인 온라인 여론 형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중국 웨이보 회사에는 정부에서 파견된 검열관이 상주하며 민감한 내용이 떴을 경우 상부에 수시로 클릭 수와 파급력을 보고한다. 이들은 정부에서 월급을 받고 중앙선전부의 검열 지시에 따라 내용을 검열하여 검색어를 차단한다. 예컨대 2011년 자스민 시위, 2010년 류샤오보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알려졌을 때 웨이보 운용사들이 관련 단어의 검색을 차단했다. 또한 민감한 내용을 직접 삭제하거나 영향력이 큰 블로거들을 회유하여 발언을 자제하도록 한다.[45]

넷째, 중국정부는 웨이보 통제 규정을 제정하여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웨이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위법정보를 유포할 수 없게 했다. ① 헌법이 규정한 기본원칙 위반 ② 국가안전을 해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정권 전복, 국가통일 방해 ③ 민족단결 파괴 ④ 사교 전파를 통해 국가종교정책 파괴 ⑤ 유언비어 유포로 사회질서 혼란 및 사회 안정 파괴 ⑥ 불법집회, 결사, 시위를 선동하여 대중소요 유발 ⑦ 불법민간조직 명의의 활동 등이다.[46]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웨이보 통제 방식 하에서 중국인들은 중앙정부와 고위급 지도자에 대한 비판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검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올리지 않는다. 중국 네티즌은 허용되는 이슈의 경계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 내에서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사회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익숙하다. 중국 네티즌들은 '새장

43) <중앙일보>, 2012년 5월 29일; <중앙일보>, 2012년 5월 10일; <중앙일보>, 2012년 4월 25일.
44) Christian Gobel and Lynette H. Ong, "Social Unrest in China," *Europe China Research and Advice Network* (2012), p. 55; <중앙일보>, 2011년 12월 6일.
45) <중앙일보>, 2013년 3월 18일; <중앙일보>, 2013년 5월 20일.
46) 「北京市微博客發展管理若干規定」, <北京晚報>, 2011年 12月 16日.

에 갇힌 자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새장에 부딪혀 손상을 입지 않으려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셈이다.

V. 중국정부의 온라인 활동

1. 중국식 인터넷 문화 형성

1990년대 중반 중국 지도부는 정보화를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영역으로 보았고 정치적 저항의 장으로 보지는 않았다. 중국 지도부는 인터넷이 상시 의사소통의 채널로서 당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했다. 정보화는 산업현대화, 중앙의 통제력과 안정을 강화시킬 것으로 생각되었다.[47] 중국정부가 인터넷이 체제유지를 위협할 수 있는 민주적 공론장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법적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파룬궁 사건 후인 2000년이었다.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10개 이상의 인터넷 규제 법규가 만들어졌다.[48]

중국의 온라인 공간은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새로운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많은 권리 옹호(rights defence) 웹 사이트가 '온라인 권리옹호(online rights defence)'라는 말이 생겼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공산당 지도부는 '온라인 여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서구식 민주화를 피하면서 통치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온라인 여론을 수용하여 사회통제를 강화해야 함을 공산당 지도부도 인식하고 있다.[49] 실제로 사회통제의 정보화를 위해 안정유지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11년 안정유지 비용이 1,110억 달러로써 1,060억 달러의 국방비를 초과했다.[50] 중국정부가 온라인 공간을 효과적인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기위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인터넷 통제와 병행하여 관리방식으로 '중국식 인터넷 문화 형성'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첫째, 중국지도자들은 2007년부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인터넷 문화 건설'을 강조했다. 중국을 움직이는 고위층이 참석하는 정치국 집단학습에서 2007년 첫 번째 학습 주제가 "세계 인터넷 기술발전과 중국 인터넷 문화건설과 관리"였다.[51] 2007년 4월 23일 중앙정치국 회의, 2007년 10월 17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가 인터넷 문화 건설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인터넷은 중화민족의 사상도덕 수준 및 과학문화의 향상,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52]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2011년

47) Guobin Yang (2009), p. 54.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확산은 정보화가 경제발전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유명한 전자상거래사이트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큐큐)이다. 2013년 5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시나웨이보와 지분인수를 통해 제휴했다. <매일경제>, 2013년 5월 1일.

48) 2000년대 초반 중국의 인터넷 규제 법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정재호, 「파룬공, 인터넷과 중국 내부통제의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35집 3호 (2001).

49) Guobin Yang (2009), p. 30; Xiaoling Zhang and Yongnian Zheng (eds.), (2009).

50) Christian Gobel and Lynette H. Ong (2012), p. 7.

51) 유상철, 「정치국 집단학습을 알면 중국의 미래가 보인다」, 『동아시아 브리프』, 제6권 제3호, 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2011년 8월), 67-78쪽. 정치국 집단학습은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하여 정치국 위원, 전국인대, 정협의 고위지도자, 국무위원, 관계부처 장관 등 적게는 40-50명에서 많게는 70-80명이 참여한다.

52) 李建盛· 陳 華· 馬春玲 主編 (2011), 5-20쪽 참조.

2월 베이징 중앙당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인터넷 관리 감독 강화 및 인터넷 여론 지도 기구 정비'를 강조했다.[53] 2011년 17기 6중전회의 주요의제 역시 '인터넷 통제 및 관리강화'였다. 베이징시 역시 2007년 <베이징시 인터넷 문화 건설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인터넷 문화 중점 단위를 정하고, 인터넷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둘째, 2008년은 '관방 사이트의 해'라고 할 정도로 당과 정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지시형 통치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여론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2009년 중국 정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 고위급 정치지도자의 웨이보 및 블로그 개설 붐은 이런 변화를 보여준다. 2009년 2월 28일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정부왕(中國政府网), 신화왕(新華网)을 통해 네티즌과 교류함으로써 정부, 공무원, 대중이 온라인 공간에서 상호 소통하는 좋은 예를 보여주었다. 2009년 12월에는 많은 고위 공직자와 양회(兩會) 대표들이 런민웨이보(人民微博)를 이용하여 민의를 수렴했다.[54]

2011년 3월 양회기간에는 양회 전용 홈페이지, 런민왕(人民网), 웨이보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이 시기 <정부업무보고>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온라인 민의를 수렴하여 사회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새로운 사회관리 방식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재정예산결산, 정책법규 및 다양한 정부 소식을 발표하는 창구로 웨이보를 사용하기도 한다.[55] 이런 정부의 온라인 활동은 인터넷을 국민들의 민의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사회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중국 정부는 관방 뉴스 사이트(新聞网站)를 만들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 네티즌이 자주 이용하는 영향력이 있는 뉴스 사이트는 런민왕(人民网), 신화왕(新華网), 중시왕(中視网) 등이다.[56] 중국 정부는 1997년 런민왕, 신화왕 등의 관방 뉴스 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하여 이미 20여개의 다양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에는 베이징 치엔롱왕(北京千龍网), 상하이 동팡왕(上海東方网)이 개통되었다. 또한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 베이징르바오(北京日報) 등 9개의 베이징시 뉴스매체가 공동으로 뉴스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양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중점 뉴스 사이트는 2010년 7월 현재 총 12개 사이트였다. 공산당 및 정부가 만든 관방 뉴스 사이트는 사회주의 가치관을 홍보하는 창구로 이용된다.[57]

중국에서는 오프라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만을 뉴스 사이트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뉴스 통제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민감한 정치적 뉴스의 경우 오프라인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온라인공간에서 확산되는 것을 통제한다. 또한 중국정부가 지지하는 이슈를 네티즌들이 공적 이슈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온라인 공간을 국가 공간으로 만들기도 한다.[58]

---

53) <동아일보>, 2011년 2월 20일.
54) 李建盛· 陳 華· 馬春玲 主編 (2011), 5-20쪽 참조.
55) 온라인 공간에서 정부와 시민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李建盛· 陳 華· 馬春玲 主編 (2012), 346-352쪽; 人民網輿情監測室 著,『如何應對網絡輿情』(北京: 新華出版社, 2012), 5-8쪽.
56) 人民網輿情監測室 著 (2012), 5쪽.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인터넷 뉴스에 접속하는 네티즌 규모는 4억 6,100만 명이고, 네티즌 중 인터넷 뉴스 사용자 비율은 약 78%이다. 中國互聯网絡信息中心 (2013).
57) 李建盛·陳 華·馬春玲 主編 (2012), 51-53쪽, 58-59쪽; 李建盛· 陳 華· 馬春玲 主編 (2011), 5-20쪽; 馬駿·段秦·李海英·朱閣 著,『中國的互聯網治理』(北京: 中國發展出版社, 2011), 132쪽.

넷째, 인터넷 시대에는 인터넷과 웨이보가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한다. 2010년 9월 인민일보에 '인터넷 신문고 <중난하이(中南海) 직통 라인>'이 개설되었다. 이것은 인터넷 정치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티즌이 후진타오 총서기 등 당 중앙지도자에게 직접 건의 가능한 통로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웨이보가 국민여론을 좌우하는 신매체로 부각되자 중국정부는 고위 공무원들의 웨이보 개설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문제에 관해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로 이용하고 있다. 2011년 11월 기준으로 베이징 시정부에서 운영하는 웨이보가 20여개였다. 그러나 관방 웨이보는 문제를 제기하는 장소에 불과할 뿐 해결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예컨대 베이징시 공안국이 만든 '평안한 베이징(平安北京)' 웨이보는 경찰과 시민의 소통 장소일 뿐 문제를 처리하는 창구는 아니다.[59]

다섯째, 중국정부는 중앙 및 지방 관료들을 감독하는 수단으로 인터넷과 웨이보를 이용하고 있다. 예컨대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공무원 재산공개'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온라인 여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2010년 3월 3일 전국인대에서 공무원 재산공개 입법화가 제안되었다. 입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문 및 온라인 공간에서 이 이슈를 공론화하여 공무원 재산 공개는 '민의에 따른 것'이라는 여론을 조성했다. 예컨대 관방 뉴스 사이트 신화왕에서 "공무원 재산공개는 부패를 자르는 예리한 칼이다"라는 시론을 발표하여 입법화라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다른 신문 시론에서도 '공무원의 재산 공개는 민의이다.'라는 제목 하에 공무원 재산공개는 본인 재산의 합법성을 증명하고 대중의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며, 대중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법적이라고 역설했다.[60]

중국정부는 지방정부의 부패를 감독하는 수단으로 웨이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시민기자들이 웨이보를 통해 폭로하는 지방정부의 부패문제는 전국적 이슈화되곤 한다. 2010년 중국 인터넷에서 주요 이슈는 관료부패, 법 집행 과정에서 불공정, 관료 및 부유층 자녀의 횡포, 주택가격 및 물가상승 등이 핵심이슈였다.[61] 예컨대 2010년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 아버지가 리강(李剛)이야'라는 유행어가 인기를 끌었다. 이 사건은 권력층 자제의 부적절한 행동을 계기로 지방 공무원의 권력남용을 비판한 사건이다.[62] 2011년 9월 초 중국 베이징 시내 한복판에서 인민해방군 장성 아들(15세)이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리어 피해자를 때려 중상을 입히고 구경꾼들에게 "누가 감히 나를 신고할 수 있느냐"고 큰소리를 친 사건이 웨이보에 게재됐다. 이는 곧바로 특권층의 오만과 안하무인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연결되었다.[63] 또한 시진핑 정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부패척결에서도 웨이보가 일등공신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컨대 경제정책을 지휘하던 고위 관료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장관급)이 웨이보에서 학력 위조가 이슈화되어 2013년 3월 낙마했다.[64]

---

58) 尹韻公 主編,『中國新媒體發展報告 (2011)』(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121-122쪽 참조.
59) 尹韻公 主編 (2011), 182쪽; 李建盛・陳華・馬春玲 主編 (2012), 253-255쪽, 353-356쪽.
60)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杜駿飛 主編,『2010-2011 危如朝露: 中國網絡輿情報告』(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11), 270-272쪽.
61) 尹韻公 主編 (2011), 45쪽, 131-132쪽.
62) 이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18, 2010.
63) <중앙일보>, 2011년 9월 19일.
6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중앙일보>, 2013년 5월 14일.

웨이보는 민의 표출의 통로이자 민의 수렴의 중요한 플랫폼이다. 웨이보에서는 자주 사회 공공인물 및 사건에 관한 논평을 볼 수 있고, 국가 중대사건이나 사회공공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웨이보에서 관심주제로 되어 많은 글이 올라온다. 따라서 웨이보 정보의 정리 및 분석은 온라인 여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인식한 중국정부도 웨이보를 이용한 온라인 문화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공간에서 웨이보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으로 보인다. 그러나 웨이보 역시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운 일종의 '새장 속의 자유'와 비슷하다.

2. 인터넷 평론원제도

중국정부는 2000년대 후반 새로운 인터넷 관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공식적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책임이나 자기규제 향상, 인터넷에서 긍정적 공적 의견(positive public opinion)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정부는 2004년부터 "인터넷 평론원(Internet commentators)" 제도를 도입하여 온라인 여론을 관리하고 있다. 인터넷 평론원은 정부에 고용된 대리인으로서 온라인 공간에 참여하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자원하거나 돈을 받는 인터넷 평론원은 '리플 달기'를 통해 온라인 논쟁에 직접 참여한다. 이들의 임무는 비판적 논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 선전부의 지침에 부합하도록 논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메시지 건당 5마오(毛)를 받는 인터넷 평론원을 '우마오당(五毛黨, fifty-cent party)'이라 부르기도 한다.[65] '우마오당'은 중국정부에게 은밀하게 채용돼 중국정부의 논리로 여론을 선도해 가는 인물이다.

반면, '왕터(網特: 인터넷 스파이, 50달러당)'는 서구 자유주의, 인권, 민주 등 어휘를 사용하며 중국의 국가 현실을 비판하고 서구적 가치관과 명분을 강조하는 네티즌을 지칭한다. 중국 네티즌은 '50달러당'을 비판하기도 한다. '50달러당'은 평범한 네티즌을 가장해 반정부 댓글을 올리는 이들을 지칭하는 네티즌 속어다. 중국 네티즌은 이들이 미국 정보기구의 사주를 받고 돈을 받으며 글을 올린다고 생각한다. 2008년 티베트 시위 반대와 올림픽 성화 봉송 시위를 둘러싸고 중국 민족주의 과열의 진원지인 인터넷에서 '우마오당,' '왕터'라는 별칭이 붙은 네티즌이 논쟁을 벌인바 있다.[66]

중국정부는 네티즌들의 온라인 여론을 이용하여 정부 입장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끌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예를 소개하면, 2008년 중국 네티즌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티베트 독립 운동 반대'라는 중국정부가 지지하는 이슈를 공론화했다. 2008년 나타났던 중국인들의 대규모 온라인 항의(서방 언론 비판 시위, 성화 봉송 지지 시위 등), 불매운동(까르푸 불매운동), 압력행사 등은 정부 이슈를 적극 지지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시민 행동주의(civil activism)라고 볼 수 있다. 티베트 독립 운동을 주도 해 온 달라이 라마에게 까르푸가 재정적 지원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은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까르푸 불매운동'을 했다. 또한 2008년 3월 '라싸 시위 사건'을 서방언론

65) Guobin Yang (2009), pp. 49-51.
66) <동아일보>, 2008년 5월 6일.

이 왜곡 보도했다는 이유로 중국인들은 서방 언론 비판 시위를 했다. 티베트 독립 시위가 세계 각국에서 올림픽 성화 봉송 반대 시위로 이어지자 해외 중국인들은 올림픽 성화 봉송 지지 시위로 대응했다.[67] 이런 네티즌의 온라인 활동은 중국정부가 시도해 온 '중국식 온라인 문화건설'에 부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티베트 독립 반대라는 온라인 집단행동은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자발적인 행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배후에는 인터넷 평론원들(우마오당)의 '리플달기' 활동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VI. 결론

온라인 공간은 정부의 인터넷 통제(Internet control)와 시민의 인터넷 활동(Internet activism)이 상호 경쟁하는 곳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무엇이 합법적 혹은 불법적 표현인지의 경계가 항상 움직이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전에는 금기시되던 이슈들이 허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슈의 경계선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중국 네티즌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는 침묵하는 반면 허용되는 이슈는 전국적 범위에서 공론화하여 '온라인 여론'을 만든다.

온라인 공간은 시민과 국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열린 공간이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유통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인터넷의 영향은 상반된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시민은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권리 보호 및 언론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활동'을 확대하려 한다. 반면에 국가는 걸러진 안전한 정보만을 유통시키기 위해 '온라인 통제'를 해왔다.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에서 집단행동(群體性事件)이 급증하여 사회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집단행동은 1993년 8,700건에서 2005년 87,000건으로 10배 증가했고, 2010년에는 약 18만건에 달했다.[68] 이런 사회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온라인 공간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 간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장소로 활용될 뿐 정치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저항의 장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드물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중국 정부의 '온라인 통제와 활동'(기술적 통제, 이슈통제, 여론관리, 정부의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정부의 온라인 공간 관리 방식의 특징은 '새장 속의 자유'라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 연구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공간을 통제하는 업무를 맡은 공산당(중선부)과 정부기구(국가인터넷판공실)가 서로 협력하며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에 대한 기술적 통제 역시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즉, '인터넷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방화벽과 다양한 검색어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이슈는 공론화되기 어렵다. 또한 거대한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IT기업들이 중국정부의 검열에 동의하고 기술 및 장비 제공에 협력했기 때문에 중국은 세련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

67) <동아일보>, 2008년 4월 20일; <동아일보>, 2008년 4월 29일.
68) <중앙일보>, 2011년 8월 17일.

다.

둘째, 중국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 이슈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새장 속의 자유'이다. 물론 인터넷 보급 이전에 비해 언론자유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 자유는 정부가 허용하는 이슈에 국한된 표현의 자유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집회 제안, 공산당 일당체제에 도전하는 이슈, 소수민족 독립이나 집단저항, 천안문사건 재평가, 중앙 고위급 지도자 비판 등은 금지된 이슈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공론화되기 어렵다.

셋째, 온라인 여론관리를 위해 여론을 주도하는 대표적 매체인 웨이보를 중국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1년 웨이보가 언론통제에 위협적이라 인식하자 2011년 12월 베이징에서 웨이보 실명제 실시를 발표한 후 2012년 3월에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웨이보를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웨이보 사용자 스스로 자기검열을 통해 이슈를 선별하여 공론화하게 되므로 웨이보에서도 정부 의도에 따라 걸러진 정보가 유통된다.

넷째, 중국정부는 온라인 공간을 통제하는데서 더 나아가 그 공간에 직접 참여하여 '온라인 활동'을 함으로써 국가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 왔다. 2009년부터 중국 중앙 지도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는 "중국식 인터넷 문화 형성"이라는 구호 하에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관료들이 인터넷과 웨이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사회통제에 유리한 온라인 여론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중국 온라인 공간은 정부 관료들이 시민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민심을 파악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 평론원 역시 중국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온라인 여론을 조성해 왔다. 또한 중국정부가 만든 관방 뉴스 사이트는 정부가 허용하는 걸러진 뉴스만을 전달한다. 이런 온라인 활동을 보면, 중국정부가 인터넷 시대에 '통제와 자유의 공존'이라는 유연한 대응을 통해 온라인 여론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식 인터넷 문화 형성 사례들은 국가의 온라인 활동이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정부는 때때로 온라인 공간에서 토론의 자유를 허용하여 온라인 여론을 정치투쟁이나 부패척결 등 공산당의 집정능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한다. 정책집행을 할 때 '인민이 원해서'라고 선전하기 위해 온라인 여론이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온라인 언론자유의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경우 있으며 체제에 위협적인 이슈는 거의 걸러지고 있다. 중국에서 온라인 언론자유를 기초로 시민권 보호에 성공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런 시민들의 성공은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온라인 공간의 특징이다.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 시민과 정부의 줄다리기 게임에서 누가 더 많은 자유영역을 차지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승리할 경우 중국의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고, 국가가 승리할 경우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새장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다.